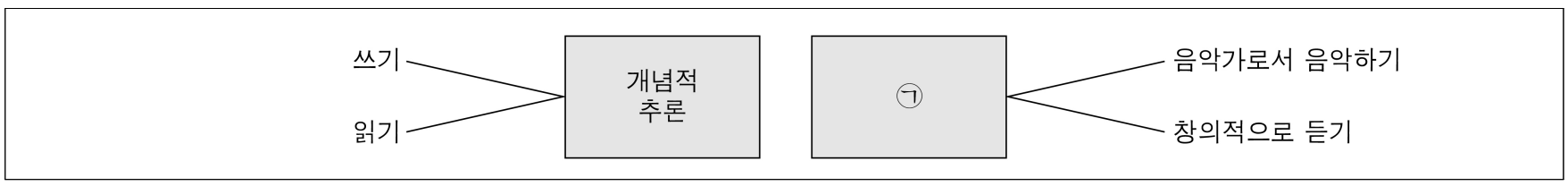
12. (가)는 리머(B. Reimer)의 음악교육 철학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음악 학습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리머가 제시한 그림이며, (다)는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리머는 1970년에 절대표현주의 미학 이론에 근거하여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규정하는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을 제안하였다. 이후, 20세기 후반 범세계적 철학 사조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관점을 반영하여 2003년에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을 제시하였다.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의 의미는 '미적 지각-반응'을 통한 심미적 경험을 말한다. 리머에 의하면 심미적 경험은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였다. 그는 심미적 음악교육의 목적을 음악 작품에 내재된 (㉠)의 세계를 감지하고 그 질을 판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통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리머는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에 내재하는 미적 본질뿐 아니라, 실천적 경험, 사회 변혁적 경험, 다문화적 경험 등을 포함하는 외재적 의미도 폭넓게 수용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의 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악적 경험에는 ㉡ 그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경험 중심'이라는 새로운 철학의 용어는 바로 이 공통적인 음악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리머는 또한,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적 이해의 방식인 '음악적인 앎'을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의 앎이 4가지 차원(dimension, 영역)의 음악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4가지 차원은 서로 배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속에서 서로 중첩되어 경험된다.

(나)



(다)

교사 A : 선생님, 2025년부터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근거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새로 나온 교과서를 보셨나요?

교사 B : 네,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가 학교에 전시되어 있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보기에 악곡의 장르가 더 다양해졌어요. ㉢ 다른 문화권의 음악, 대중음악도 이전보다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교사 A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해 그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이 더 강화되는 느낌이네요.

교사 B :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경향은 음악교육 철학자들도 강조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A : 맞아요. 리머가 ㉣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에서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으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강조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해요.

교사 B : 그러면 다양한 음악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사 A : 제 생각에는 모든 음악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음악을 학습한 후, 음악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B : 그렇군요. 음악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 및 시대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계획해야겠어요.

<작성 방법>

○ (가)와 (나)의 ㉠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가)에서 ㉡이 의미하는 용어를 쓸 것.
○ (다)에서 ㉢에 나타나는 음악적 경험의 차원을 쓰고, ㉣에 의한 '음악의 의미' 변화를 리머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